

담양군, 차별화된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추진

간담회 갖고 브랜드 육성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협의

올해부터 2년간 19억 확보 한우시장 개척·소득 증대 목표

담양군은 지난 8일 담양식 창조농업으로 한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신 부군수,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단, 순천대 교수, 관련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득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브랜드 육성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은 민선 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건강하고 차별화된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을 통해 새로운 한우시장 개척과 한우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9억 원을 확보해 브랜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추진단 선감진 대표는 "저지방한우 브랜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산기반과 상품개

발, 유통분야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산연구, 상품과 방안, 유통센터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전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부군수는 "저지방한우 브랜드 사업은 단기간이 아닌 멀리 보고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업이다"며 "브랜드 육성을 위해 사육두수 및 유통물량 확보와 함께 '단순히 지방이 없는 한우가 아니라 저지방한우용으



로 사육된 한우'라는 차별화된 브랜드의 강점을 살려 홍보·마케팅 활동에 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강인규 나주시장, 광전노협과 간담회

나주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와 지역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8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6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장재영 광전노협 의장을 비롯한 이전기관 노조위원장 등 10여명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나주 신도산단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행정소송을 앞두고 현황 공유를 통한 광전노협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 혁신도시 인근 약취 등 정주여건에 대한 주민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광전노협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조직 확대 및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마련, 원도심과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e-sports대회 개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문제 해결, 약취해소 등을 건의했다.

강인규 시장은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광전노협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추후 지속적인 논의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강 시장은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광전노협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만큼 주민 소통의 가교로서 광전노협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에게서 열병합발전소 광주SRF반일 저지를 위해 매주 집회와 광주지방법원 피켓 시위에 나서는 등 노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동취재본부

구례군, 고령농업인 정지전정 지원 사업 완료

47농가 21ha 연인원 184명 투입...65세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감 재배 농업인 대상



구례군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감 정지전정 지원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령농업인 감 정지전정 지원 사업은 고령화 농촌의 일손지원으로 정지전정에 따른 노동력 및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되었다. 군에서 구성한 정지전정지원단이 사업신청 농가에 파견되어 사업이 진행되며, 인건비의 50%가 지원된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 재배 농업인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이런 연도 상반기 사업을 통해 47농가가 지원을 받아 감 과원 21ha의 정지전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단순히 고령농가에 노동력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수고 정지전정 기술을 도입해 수고가 높아 농작업하기 어려운 기존 과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많은 농가들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소득감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가에 정지전정 인원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이 영농에 대한 의지를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감 재배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지전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국비 60억 확보

장성군 북일면 신흥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상습 침수 농경지의 재해 발생을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장성군 북일면 신흥지 일대는 여름철 집중 호우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어 온 지역이다. 1971년 경지 정리 이후로 대규모 개선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배수 관련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했다.

장성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작업이 완료되면 총 99ha 규모의 농지 및 시설물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해진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사례로 배우는 혁신' 특별강좌 개최

곡성군이 정부 혁신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혁신 의식을 높이고자 혁신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8일 군청 대동마루에서 열린 이번 특별강좌는 '사례로 배우는 혁신'을 주제로 실제 현장의 사례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행정안전부 혁신강사단 김민수 울주군 관광정책 전문관이 나섰다.

김 전문관은 영남알프스 완능사업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협업의 중요성과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강의에 참석한 70명의 교육생들은 구체적인 사례로 접근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곡성=양혜영기자

화순군, 생활 밀착형 운동기구 보급

화순군이 군민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 운동기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오는 4월 말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관내 11개 마을에 운동기구 34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어르신들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생활 밀

착형 운동기구를 이용이 편리한 마을회관 근처에 설치한다. 군은 지난달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와 신청 마을 현장 방문을 진행했고, 편리성, 접근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마을 단위 운동기구 설치 완료되면 군민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 - 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